

Press release below for translation, 711 words

영어 학습자들 뉴저지 학교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수준 이하 서비스 직면

보고서에 의하면 영어 학습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에서 영어 학습 기회의 제한을 받은것으로 확인

NJ Consortium for Immigrant Children (뉴저지 이민자 아동 연맹 (NJCIC)), NJ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NJ Bilingual Educators (뉴저지 외국인 대상 영어교사 협회/뉴저지 이중언어 교육자 (NJTESOL/NJBE) 및 Education Law Center (교육법 센터 (EL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뉴저지 공립학교의 영어 학습자들 (EL 학생)은 불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에 중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고서는 NJTESOL/NBE 에 가입된 80 명의 ESL/이중언어 교육자, 행정직원 및 상담사의 심도 깊은 설문조사 결과 및 학부모, 보호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2021 년 4 월부터 7 월 사이에 시행한 면담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영어학습자들과 가족들이 불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학생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영어학습자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영어 학습자: 팬데믹 이후의 불평등 노출과 기회 확대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학군이 뉴저지 이중언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방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자들의 삼분의 일 이상이 EL 관련 뉴저지 규정 미준수가 각 학교의 “중대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 설문조사 참여자의 삼분의 일 이상은 팬데믹 이전에 영어 전용 수업시간에 언어 지원이 없었으며 10 퍼센트의 응답자는 Google Translate 가 EL 학생들을 위한 유일한 지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응답자의 26 퍼센트는 각 학교에 출석 회복 정책이 없으며 더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학교 정책을 EL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많은 수의 EL 학생들이 자퇴하고 있으며 응답자 한명은 팬데믹 기간중 해당 학군에서 180 명의 학생이 자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NJTESOL/NJBE 의 Executive Director (전무) Kathleen Fernandez (케슬린 퍼난데즈)씨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문닫은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아동들이 식사를 거른다는 답변부터 EL 학생들은 학교측의 관심밖이라는 답변에 이르는 걱정되는 답변들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새로운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일부 부모들은 EL 서비스는 항상 찬밥이라고 말합니다.”

NJCIC, ELC 및 NJTESOL/NJBE 는 뉴저지 입법자들에게 영어 학습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2021 년 6 월에 NJTESOL/NJBE 는 American Rescue Pl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mergency Relief Fund (미국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긴급 구조금 (ARP ESSER))의 자금지원 요청 목적으로 제출된 뉴저지 계획안 (NJ State Plan)이 영어 학습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뉴저지 교육부 (NJ Department of Education)측에 계획안의 변경 촉구를 요청하는 탄원서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NJCIC 는 또한 7 월 28 일 뉴저지 인력부 (NJ Department of Human Service)측에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추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ARP 자금의 일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간략한 증언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수집한 자료에 의거해서 뉴저지 교육부, 뉴저지 입법부 (State Legislature) 및 머피 행정부 (Murphy Administration)측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했습니다.

- 모든 학군이 이중언어 교육 규정 (Bilingual Education Code)를 준수하도록 책임소재 파악 절차를 개발한다.
- 언어 지원의 확대를 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자의 능력개발을 요구하며 “불평 조사” 제도를 설립해서 위반 보고에 대응한다.
- 영어 학습자들이 팬데믹과 기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적절한 이중언어의 정신건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저지 이민자 아동 연맹의 이사 (Director) 에밀리 체토프 (Emily Chertoff)는 “본 보고서에 의하면 EL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팬데믹은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한 동시에 이러한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교육법 센터의 선임 변호사 (Senior Attorney)인 제시카 레빈 (Jessica Levin)씨는 “우리의 목표는 교육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모든 학교가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EL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가 보완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취약점을 노출시켰지만 뉴저지는 본 보고서의 추천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미국의 교육 평등을 선도할 수 있을것입니다.”